

社說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만의 색깔 담아내야

광주 문화수도의 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민선 7기를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7기 광주혁신위원회가 "아시아문화전당장 임명 등 전당 운영 전반에 광주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주정민 광주혁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장은 지난 25일 "문화전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발전소 및 문화융합공간으로서 전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11월 25일 공식 개관했지만 3년이 되도록 확고한 위상을 찾지 못한 채 정부와 광주시의 틈바구니에서 표류하는 인상을 받아왔다. 그러면서 프랑크 폰피두센터에 버금가는 아시아문화발신기지라는 당초의 원대한 목표와 동떨어진 채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현재 문화전당은 복합적인 난제에 얽혀 있다. 우선 전당을 책임지고 끌고 갈 전당장 공

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첫 전당장 공모 이후 다섯 차례나 인선이 무산된 가운데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도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가 겹치면서 전당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ACC와 아시아문화원으로 나눠진 조직 통합문제도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광주혁신위는 아시아문화전당조직위원회 산하에 광주자문위원회 설치, 전당장 임명에 광주시장 의견취조항 추가 등 지역사회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시와 전당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해 전당의 콘텐츠 구축과 프로그램에 지역의 문화예술인, 기관, 대학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해놓은 전당운영의 밑거름을 새롭게 그리고 문화권사업 등 연관 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아시아문화전당에 광주만의 색깔을 담아내는 일일 것이다.

전남관광객 6천만명 시대 소득연계 절실

전남도가 관광객 5천만명 목표를 지난해 조기 달성하고 이제 '관광객 6천만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전 전국 관광 메카의 명성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중요해졌다.

다행스럽게 전남도는 해외 크루즈 관광객의 다변화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예정 등으로 '전국 관광 1번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특히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목표로 한 전남관광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설정함에 따라 민선 7기 전남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5천79만명으로 경기도(7천643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는 2016년말 4천279만명보다 800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남도가 목표한 '2018 관광객 5천만명 유지'를 1년 앞당긴 것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가장 많은 1천508만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순천시 907만명, 담양군 279만명, 목포시 259만명, 구례군 249만명 순이었다.

주요 관광지별 방문객 수를 보면 순천만 국가정원 612만명,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357만

명, 여수 오동도 315만명, 여수 둘산공원 266만명, 담양 죽녹원 13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수·순천이 해양·생태관광 흐름에 힘입어 전남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 관광객 6천만명 시대를 맞아 아쉬운 점은 전남 동부권은 감세를 보인 반면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모습을 보여 동서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목포·신안·완도·진도 등 서부권은 다도해를 중심으로 동부권과 다른 색깔을 내뽐고 있다. 고즈넉한 섬 문화와 원형이 잘 보존된 목포 근대유산이 커다란 관광자수이다.

장차 서부권은 광주송정-목포간 KTX 2단 구간이 완공되고, 연간 150만명이 이용한 광주민간공항이 민선 7기 무안공항으로 이전되면 자연스레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전남의 미래먹거리는 관광산업이었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전남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서부권 관광진흥을 위해 역점을 두는 한편 관광객 증가가 주민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마케팅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뉴스

무역분쟁·고용 쇼크...소비심리 1년 2개월 만에 최악

무역분쟁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고용 부진이 이어지며 소비자심리가 1년 2개월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전월 대비 하락 폭은 최순실 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뒤숭숭하던 2016년 11월 이후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5로 한 달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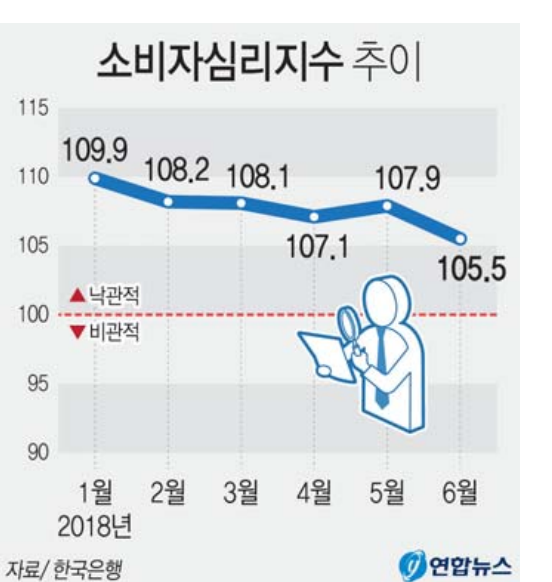
CCSI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CCSI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폭 미끄러지다가 지난달 0.8포인트 반등하며 하락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바로 내림세로 돌아서며 모처럼 만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전월 대비 하락 폭은 2016년 11월(6.4포인트) 이후 최대다. 당시에는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불거지던 때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상당히 적었고 잠잠할 것처럼 보이던 미·중 무역분쟁 재연되는 점이 소비자심리에 좋지 않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미국은 지난 15일 중국산 제품 총 1천102개 품목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고 이에 중국 정부도 동등한 규모의 보복조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국국 650-2072	광국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시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4차 산업혁명시대와 스포츠 콘텐츠

시론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난 14일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월드컵이 리비아에서 개막했다. 월드컵이 개막과 함께 방송과 신문, 인터넷상에 월드컵 관련 기사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에서는 축구 경기하이라이트 영상 조회 수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등 전 세계인이 보여주는 월드컵 열기는 매우 뜨겁다.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 기업들은 월드컵 특수를 겨냥한 광고를 내세우고, 응원전을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월드컵을 맞아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번 월드컵뿐만 아니라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축제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영향력, 파급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스포츠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와 반전이 가능한 드라마틱한 결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정해진 규칙에 의해 경기가 진행되

다. 공중과 방송 한계에 국한되지 않은 자유로운 표현과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소통의 장점이 이들 인기의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스포츠 콘텐츠는 이처럼 다양한 매체, 사람과 '연결'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의 한 예가 바로 디즈니사의 21세기 폭스사 인수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폭스사는 방대한 영화사업과 TV 스튜디오, 지역 스포츠 채널 등 다양한 콘텐츠와 전송 플랫폼 등을 보유한 미디어 제국이다. 디즈니가 7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하는 이유도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연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포츠 콘텐츠는 과거처럼 방송의 송출이라는 개념의 일방향이 아닌 사용자와 연결·융합되어 진화하는 특징을 가지며, 스포츠 종목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ST(Sports Technology) 확산에 따라 의학·재활·마케팅·교육 등 다양한 산업의 변혁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기술을 적용한 체험형 스포츠는 물론 3D 홀로그램 가상현실(VR), 증

강현실(AR), 신소재 등이 결합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도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산업고도화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남의 경우도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시뮬레이션 분야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나주에 위치한 실감미디언센터,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통해 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기업성장 위한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리체계와 공유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 콘텐츠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들어서 다양한 매체와의 연결 그리고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이유로 미디어 환경에서 최적의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를 아우르고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강력한 차세대 글로벌 콘텐츠임은 분명하다. 스포츠 콘텐츠가 4차 산업혁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킬러콘텐츠로써 지역에서도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포츠 콘텐츠는 과거처럼 방송의 송출이라는 개념의 일방향이 아닌 사용자와 연결·융합되어 진화하는 특징을 가지며, 스포츠 종목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ST(Sports Technology) 확산에 따라 의학·재활·마케팅·교육 등 다양한 산업의 변혁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기술을 적용한 체험형 스포츠는 물론 3D 홀로그램 가상현실(VR), 증

현장칼럼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지방선거의 빛과 그림자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치권 안팎에 돌아다니는 선거 후폭풍이 워낙 큰 탓인지 두 달도 더 된 것 같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인수위원회 활동 등 차질 없는 민선7기 개막 준비에 분주하다. 다행스런 일이다.

당초 대다수 언론은 이번 선거가 남·북·미 정치회담이라는 초대형 이슈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6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역일꾼 선출 이상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선거 결과는 한국의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한결같이 이번 지방선거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이 손쉽게 승리했다고 분석했다. 여당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하고 발빠르게 차기 정당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힘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 등 주요 대선공약을 담담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당장 검증수사권 조정 등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반면에 야당은 몰락 수준의 참패로 극심한 혼돈 상황에 빠져들었다. 불행한 일이다. 건전한 야당 없이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당장 정부 여당의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야당이 하루 속히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후반기 원(院) 구성 등 국회 운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이

'해쳐 모여'하는 것까지 나서서 말릴 수는 없었지만, 주도권을 잡은 여당이 주도적으로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상황에 이어 우리 지역의 상황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총론적으로 말해 민주당이 집권여당에 걸맞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다만 지역 일을 놓고 보면 마냥 촉매탄 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전남의 기초단체장 22명 중 8명이 비민주당인 사실 주목해야 한다. 공천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과 시·도당이 관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 잡음과 패배를 자초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 신안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3위에 그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시·도지사가 민주당 당내 경선으로 사실상 결정되고 112 후보는 싱거운 요식행위에 그치는 비정상도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제야당인 한국당이 사상 최초로 시·도지사 후보도 못 내고, 민평

당은 광주시장 후보가 중도 사퇴하고 말았는데 타 시·도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 영남지역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PK가 완전히 달라졌고 TK도 크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지방선거의 불행한 진실 중 하나는 돈 선거다. 돈의 위력은 유권자 수가 적은 선거일수록 더 크게 작용한다. 이번 선거에서 20%가 넘는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견인한 좋은 사례로 거론되지만, 그 이면에는 노약자들을 차로 실어 나르며 돈을 주고받는 비리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에서 부정선거의 전형인 금품선거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선관위와 검경의 엄정 대응을 촉구한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전국동시 지방선거도 상당수 지역에서 돈 선거로 치러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전에 극약처방이라도 해서 돈 선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자투고

데이트 폭력, 인연에서 악연으로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빈번히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다. 가정폭력은 여러 번 들어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생소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말 그대로 남녀 간의 갈등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퇴거불응), 스토킹 등을 일컫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

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030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에서는 88.5%인 1770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각종 자료로 현재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때이다.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연인의 행동을 잘 살

피고, 난폭한 기질 혹은 집착하는 징조가 보일 경우 단호히 거부한다. 그러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수용하게 되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며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행여나 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낯설, 시간을 특정하고 사진, 녹음,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하여 긴급전화 112 혹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서는 올해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100일 동안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여성 상대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각종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구속 수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활동

또한 적극 연계할 계획이니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

'안전이별'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가?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구타, 협박, 스토킹 등 행위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별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라고 한다.

지금이야말로 데이트폭력을 범죄의 시작단계에 방지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를 구출 및 사후 지원한은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한 꾸준한 홍보와 교육 등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즉각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신광사·전남청년도경찰서 유내파출소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듯 노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그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자들은 신체적으로 일반 성인에 비하여 지적 인지능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적인 사망통계를 보면 노인들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노인들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교통사고 급증에 대해 각종 대책이 강구해야 되겠지만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운전의식과 노인 분들에게 대한

규준수에 대한 인식의 재편안이 필요한 시기다.

경찰서에서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통상교육과 홍보교육을 하지만 앞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들의 보행속도는 젊은 사람에 비해 50% 이상 느리다고 한다. 이를 분석해 보면 어르신들에게 해 교통질서의 인식의 부족함을 탓

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발견시 반드시 정지선에 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 후 출발해야 하고 노인분들이 지나가는 경우 서행하고 항상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마인드 필요할 것이다.

모두가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에 어르신들에게 대한 사회적 배려가 이뤄진다면 사고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흥·국성경찰서 유내파출소